

# 영어듣기에서 담화분석처리과정

주 권 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교육과학을 발전시키는데서 중요한것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문제들과 우리 나라 교육현실이 제기하는 긴절한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기 위한 대책들을 연구하는것입니다.》(《김정일선집》 제10권 증보판 492페이지)

외국어교육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학생들의 외국어습득과 관련한 리론적문제들을 해명하여 교수내용과 방법론적문제들을 보다 과학화하는것이다.

영어듣기의 언어심리적과정에 대하여 해명하는것은 영어듣기와 관련한 옳은 견해를 가지고 그에 기초하여 듣기교수실천과 관련한 문제들을 해명하는데서 선차적인 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영어듣기에서 담화분석처리과정에 대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담화란 의사소통과정에 실지 쓰인 말이나 글로서 문맥속에서 일정한 의미적완결성을 가지는 언어행위의 단위이다. 담화는 글말로도 될수 있고 입말로도 될수 있으며 한개 문장으로 될수도 있고 여러개의 문장, 지어 수집, 수백개의 문장으로 될수도 있다. 듣기에서 론하는 담화는 입말담화이며 기본적으로 한사람이 한번에 말하는 부분을 념두에 둔다.

담화분석처리란 개별적문장의 범위를 벗어나 대화나 혼자말과 같은 보다 큰 유의미적단위를 대상으로 하고 주어진 이야기마당의 정황에 맞게 문장과 문장의 호상관계, 말뜻을 이어주는 이음새, 앞말과 뒤말의 문법적 또는 론리적연계, 말의 전개방식 등을 해석하고 리해하는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언어행위의 기본단위가 문

장이라고는 하지만 일정한 통보내용의 전달이 단일한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는 드물다. 입말에서나 글말에서나 문장의 련속다시말하여 몇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담화가 전달의 단위로 된다. 그러므로 듣기행위에서도 담화에 대한 내용파악이 전면에서 나선다. 담화에 대한 리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는 론리의미적련관에 대한 해석, 구정보와 신정보의 결합, 정황지식의 발동의 세가지 측면에서 설명할수 있다.

영어듣기에서의 담화분석처리과정에는 무엇보다먼저 론리의미적련관의 해석과정이 있다.

듣는 사람은 개별적문장들의 문법적련관을 리해하는것과 함께 혼자말이나 대화에서 제시되는 정보와 사상들사이의 관계를 리해하여야 한다. 듣는 사람은 부분적으로는 자기가 가지고있는 지식과 예측을 통하여, 부분적으로는 말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언어적표식들을 통하여 론리의미적련관을 찾는다. 대화 전과정에 듣는 사람은 의미적련관을 찾기 위하여 두개의 기본적인 과정을 거친다.

의미적련관해석의 첫번째 과정은 동일지시대상을 찾는 과정이다.

임의의 대화나 혼자말에서 같은 대상(사람, 장소, 물건, 행동, 질 등)이 여러번 언급되고 지시될수 있다. 이 대상들을 표현하는데는 여러가지 방식이 있다.

예: 완전반복

I admire Mr. Pak. Mr. Pak has been a devoted teacher.

불완전/부분반복

I admire Mr. Pak. Pak has been a devoted teacher.

어휘대용

I admire Mr. Pak. That man has been

a devoted...

대명사

I admire Mr. Pak. He has been a devoted teacher.

여러개의 발언단위전반을 포괄하는 분석을 하자면 어떻게 같은 대상이 지시되는가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한다.

예: I've just found a new apartment. It has three rooms. (대명사)

I'd like you to meet someone special. This is Louise. (고유대명사)

It's an unusual painting. I didn't know you did abstract work. (어휘대용)

Tom is dedicated and honest. At least, everybody says so. (어휘대용)

I'd like you to be home at seven o'clock. I need the car then. (어휘대용)

우의 실례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의 발언들에서 동일지시표현들을 찾기는 힘들지 않다. 그렇다고 하여 동일지시표현을 찾는것이 언제나 순탄한것도 아니다.

예: A: Where did you live in Britain?  
(영국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B: Mostly in London, but some of the time in Liverpool.  
(대체로는 런던에 살았는데 얼마간은 리버풀에서도 살았습니다.)

A: What was the weather like there?  
(거기 날씨는 어떠했습니까?)

이 경우 지시표현인 there는 런던을 가리킬수도 있고 리버풀을 가리킬수도 있다. 보통 문맥의 다른 요소들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느것이 지시되는가를 결정하게 도와준다.

의미적관련관계의 두번째 과정은 생략된 부분을 이해하는 과정이다.

대부분의 입말담화 특히 대화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의 경우 통신문이 완전하게 다 제시되지 않는다는것을 보여준다. 완전

한 어휘적항목들과 함께 담화에서 항목들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관계적요소들이 흔히 빠져나가는데 이것은 듣는 사람이 이것들을 쉽게 재현할수 있거나 문맥으로부터 추측할수 있는것과 관련된다.

예: Do you work in the city everyday?  
(당신은 매일 도시에서 일합니까?)

No, only Mondays and Fridays.

(아니요, 월요일과 금요일에만 일합니다.)

Do you drive in?

(차를 몰고 옵니까?)

No, I take the train.

(아니요, 기차로 옵니다.)

대화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입말통신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략수법을 리용한다. 생략은 말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새 정보를 빨리 제시할수 있게 하여준다. 말하는 사람은 듣는 사람이 해당 요소들과 또 해당 요소들사이의 관계를 재현할수 있으리라는 가정밑에 생략수법을 사용한다. 듣는 사람이 리해를 잘하지 못할 때 즉 어휘적요소들이나 이 요소들사이의 관계를 복귀할수 없을 때에는 생략된 어휘들을 다시 복귀하여 호상 관계들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 Where did you live when you were studying in Britain?

(영국에서 공부할 때 당신은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Mostly in London.

(대체로는 런던에서요.)

이 문장에서 말하는 사람은 when I was staying there와 I lived를 생략하는데 그것은 듣는 사람이 이 부분을 쉽게 복귀해낼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기때문이다.

영어듣기에서의 담화분석처리과정에는 다음으로 구정보와 신정보의 결합과정이 있다.

담화에 대한 리해는 말하는 사람이 언

급한것들사이의 문법적련관과 논리의미적련관관계를 기억하고 그것들을 갱신하는 과정을 동반한다. 이 과정에 대한 가장 명백한 설명을 할수 있는것은 구정보와 신정보의 개념을 리용하는것이다.

담화에 대한 리해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입말본문이 전달하는 정보를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있는 정보, 개념들과 결합시키는것이다. 담화의 리해에서 본문속의 정보는 일정한 역할만을 수행한다. 담화의 리해는 듣는 사람이 이미 알고있던 정보와 모르고있던 정보가 결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구정보와 신정보의 이러한 호상작용이 없이는 담화의 리해가 이루어질수 없다. 듣는 사람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것을 이미 다 알고있을수 있다. 그러나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것을 자기가 알고있는것과 결합시키지 않는다면 그 어떤 리해도 가능할수 없다.

영어에서 구정보와 신정보의 차이는 기본적으로 억양을 통하여 나타난다. 억양단위에서 기본력점은 신정보를 담고있는 단어에 떨어진다. 영어의 기본발음규칙에 따라 모든 내용어들이 다 일정한 력점을 받지만 신정보를 담은 단어는 보다 더 큰 력점을 받으며 이때 모음의 길이가 늘어나는것이 특징이다. 실례로 다음의 담화에서 력점을 받는 단어들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초점으로 되는 정보에로 이끌어간다.

례: //she'd been STANdin in the CAR park// and it was FREEZing COLD// and she asked her to TAKE her round to her DAUGHTer's// so she aGREED to take her round//what ELSE could she DO.

여기서 강조되는 단어들은 듣는 사람에게 무엇을 신정보로 보아야 하는가를 가리키면서 전반본문에 대한 리해에로 이끌어간다.

우에서 서술한 구정보 - 신정보관계는

고착되어있는것이 아니다. 이 관계는 듣기가 진행되는 과정에 부단히 바뀐다. 그 과정은 신정보가 그뒤로 따르는 정보와의 관계에서 구정보로 되는 과정이다. 듣는 사람은 듣기를 하는 동안 자기가 듣는 담화에 대한 심리적표상을 보존하면서 신정보로 그것을 계속 갱신하여나간다.

영어듣기에서의 담화분석처리과정에는 다음으로 정황지식의 발동과정이 있다.

사람은 언어사용을 비롯한 자연과 사회의 각이한 현상들을 리해함에 있어서 논리적사유에 의거한다. 논리적사유의 필요성은 다음의 일상입말을 놓고보아도 알수 있다.

례: A: What are the boys doing?

(애들이 뭘 하고있어요?)

B: I've just arrived.

(난 방금 도착하였소.)

이 두 문장사이에는 형태론적, 문장론적련계를 이어주는 표식이 없다. 그러나 B의 발언은 《I don't know what the boys are doing, because I've just arrived.(나는 방금 도착하였기때문에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있는지 모른다.)》라는 의미로서 그것으로써 전달적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있으며 쉽게 리해될수 있다. 듣는 사람은 해당정황에서 간단한 논리적사고로 문맥에 표현된 의미적내용을 실지 쓰인 말과 련결시킨다.

듣는 사람이 하게 되는 사유는 많은 경우 류추에 의한 사유이다. 사람들은 보통 류사한 정황에서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지식과 기대에 기초하여 추리를 한다. 듣는 내용에서 어떤 정보가 빠졌을때 듣는 사람은 해당정황의 전형적인 틀거리를 찾으며 빠진 정보가 그 틀거리안에 보통 있게 되는것과 비슷하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추리를 련결추리라고 하며 련결추리에 의한 듣기방식을 내려듣기라고 한다.

련결추리는 본문의 리해와 관련하여 의미적련관의 견지에서 빠진 내용들을 련결

시켜 이야기를 묶을수 있게 하여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미 알고있는 정보들을 하나로 묶을수 있게 하여준다. 연결추리는 듣는 사람이 가지고있는 정황지식에 토대하여 이루어진다.

정황지식은 이미 자기가 알고있는것과 유사한 정황에서 대체로 어떤 행동들이 어떤 순서로 일어나는가에 대한 지식의 총체이다.

정황지식은 영화대본과도 같이 해당 정황속에서 보통 무슨 일이 일어날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할수 있게 하여준다.

다음의 정황을 가정해보자. 식당에 들어가면 먼저 빈식탁을 찾아가 앉는다. 접대원이 다가온다. 식사차림표를 보여주며 주문을 받는다. 주류가 먼저 나오며 조금 있으면 요리가 나오기 시작하며 마감에 기본 식사가 나온다. 식사가 끝나면 접대원이 계산서를 가져오며 손님은 돈을 청산한다. 보통 계산원이나 접대원이 또 오라고 인사한다. 이러한 정황지식은 상당한 정도로 많다.

생활에서는 규칙적으로 맞다드는 모든 정황에 대한 대본이 다 있다. 어떤 정황을 연결시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정황의 내용은 썩어져있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야기의 한 부분으로 된다. 다시말하여 식당에서 접대원이 음식을 날라오거나 손님이 식사값을 묻다는것을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문화적배경에 따라 세부가 일부 달라질수 있다. 식사를 한 손님이 돈을 물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식당에 따라 식사를 다 한 다음 돈을 물수도 있고 식사하기 전에 먼저 표를 떼고 식사를 할수도 있는것이다. 이것은 정황지식이 문화적배경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듣는 사람이 가지고있는 정황지식은 구

체적화제들에 대한 기억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구체적인것일수도 있고 《책임감》이나 《의무감》과 같은 추상적개념들과 관련된 추상적인것일수도 있다.

예: Tom was returning home after a nice afternoon at the lake with his friends. His pleasant feeling changed quickly though when he saw his father at the woodpile, doing Tom's job. Still in his suit, his dad was kneeling on the ground picking up several logs. Tom started running towards his father, shouting, 'Wait, Dad, I'll do that.' (동무들과 호수에서 즐거운 오후를 보낸 톰은 집으로 돌아오고있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장작무지결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고있는것을 본 그의 즐거운 기분은 삽시에 변하였다. 아직 양복채로인 그의 아버지는 땅에 무릎을 꿇고 나무토막들을 짓고있었다. 톰은 《아버지, 놔두세요. 제가 하겠어요.》라고 소리치며 아버지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하였다.)

우의 본문에 대하여 아버지를 보았을 때 톰의 기분이 어떠하였는가고 물어본다면 그에 대한 유일하게 정확한 대답은 없지만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톰이 미안한 감을 느꼈다고 말할것이다. 그것은 자기가 할 일을 아버지가 하게 하여서는 안된다는 도덕적의무감이 형성되었기때문이다. 이렇게 도덕적의무감과 관련된 정황지식이 발동되면서 본문에 깔린 의미가 리해되게 된다.

우리는 외국어습득과정에 대한 연구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외국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며 과학화하는데 적극 기여하여야 할것이다.